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새로운 치료 전략

이상도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전통적으로 폐기종과 만성 기관지염 또는 임상적 표현형(phenotype)으로 "blue bloater" 와 "pink puffer"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임상 의사들은 이러한 용어로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를 분류하는 것은 여러 제한 점이 있다고 여겨왔다. 최근 국제 지침(GOLD)에서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1초간 노력성 호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FEV<sub>1</sub>)과 1초간 노력성 호기량 대 노력성 폐활량(forced vital capacity; FVC)의 비와 같은 정량적 검사를 이용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 또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 점이 있다. 최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다양한 병태생리에 대한 이해의 증가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여러 중요한 폐외(extrapulmonary) 합병증을 동반하는 다양한 질병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따라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는 기존의 패러다임은 잘못일 수 있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흡연과 관련된 다양한 질병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효과는 다양하기 때문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여러 표현형을 고려하여 임상 시험을 수행하여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만성폐쇄성폐질환 주요한 연구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여러 표현형의 특성을 잘 기술하고, 각각의 표현형에 대한 위험인자들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제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의 새로운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이질성(heterogeneity) 분석을 통한 개별화된 치료 전략, 둘째는 새로운 항염증 치료 전략, 셋째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폐 재생 치료 전략이다.